

# 2022년 / 3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대상으로 동아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1. 사 업 명 : 2022년 회원 동아리 지원사업
- 2.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 3. 사업예산 : 1개 동아리 당 50~100만원 차등지원
- ※ 사업계획, 동아리 결성 및 활동기간, 활동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 4. 신청자격 : 한구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이 주체가 되어 5인 이상 참여하는 동아리 사업
- 5.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25일
- 6.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연구원 사무국에 전자우편(hangoyeon@hanmail.net)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7. 지원내용 및 항목
- 지원내용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동아리 활동내용은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 답사를 비롯한 체험활동 등 자유롭게 조직 하시면 됩니다.
- 지원항목 : 강사비, 답사비, 교재비, 재료비, 인쇄비 등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경비 지원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2021년 동아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시)

| 신청사업명   | 낮은 산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  |
|---------|---|
| 사업 목적   | - 전북지역에 위치한 낮은 높이의 산을 답사하며 문화와<br>역사를 학습한다.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2022. 5 ~ 2022. 11<br>추진지역: 전라북도 일원<br>운영계획<br>- 매 일정 회원 및 시민 8인 내외<br>- 매월 1회 500미터 이하 산 답사<br>신청액<br>- 600,000원 |
| 사업세부일정  | 일정답사지5월김제 구성산7월고창 경수산9월부안 위도 망월봉10월정읍 두승산11월완주 봉실산  |
| 기대효과    | -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하여 회원 배가 운동 및 회원 상<br>호간의 친목도모 기여   |
| 예산 집행계획 | 지출항목 지원금 자부담<br>교통비 250,000 200,000<br>계획 식대 350,000 200,000<br>합계 600,000 400,000                                      |

- ※ 예시본을 참고해 희망하시는 동아리 활동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공모된 사업계획은 이사회 승인 후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우리들의 죽음 - 1990년 3월 9일

1990년 3월9일, 서울 망원동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아버지는 경비원,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나갔고 방엔 혜영(5살), 영철(4살) 남매만 있었다. 집주인은 아이들이집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으며 집에 불이 났다고 남매의 엄마에게 연락했다. 맨발로 달려온 엄마가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손톱으로 문을 긁어대다 옷더미에 얼굴을 감싼 채 숨을 놓고 쓰러져 있었다. 남매의 사연은 가수 정태춘이 부른 "우리들의 죽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맞벌이 영세 서민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셋방에서 불이나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씨는 경기도 부천의 직장으로 어머니 이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가 둔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씨가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다섯 살 혜영양은 방바닥에 엎드린 채, 세살 영철군은 옷더미 속에 코를 붙은 채 숨져 있었다. 두 어린이가 숨진 방은 3평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 옷장 등 가구류가 타다만 성냥과 함께 불에 그을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 금대2리에서 논 900평에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지난 88년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지하방을 전세 4백만원에 얻어 살아왔다. 어머니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파출부로 나가면서 부엌에는 부엌칼과 연탄불이 있어 위험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평소 이씨는 아이들이 먹을 점심상과 요강을 준비해 놓고 나가 일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개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 구조로 돼 있다.

(한겨레 신문 1990년 3월 10일 11면)

남매가 살던 집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시립 '새마을 버들 유아원'이 있었지만 탁아시간이 오후 5시까지여서 맡길 수 없었다. 32년이 지난 오늘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이라 하여도 32년 전에 비해 불과 2시간 연장된 보육시간일 뿐이다.

"법대로 하면 되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지우는 세상은 지옥에 다름 아닐 것이다. 태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이 옳고 명쾌한 명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온당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죽었어

그 때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 있었다면... 아니, 엄마만이라도 함께만 있었다면...

아니, 우리가 방 안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부둥켜안고 떨기 전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전에 손톱에서 피가 나게 방바닥을 긁어대기 전에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숨이 막혀 어푸러지기 전에

그 때 엄마, 아빠가 거기에 함께만 있었다면...

아니야, 우리가 어느 날 도망치듯 빠져나온 시골의 고향 마을에서도 우리 네 식구 단란하게 살아 갈 수만 있었다면...

아니, 여기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리는 그런 나라였다면...

아니, 여기가 엄마, 아빠도 주인인 그런 세상이었다면...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마 이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냐

여기, 불에 그을린 옷자락의 작은 몸둥이, 몸둥이를 두고 떠나지만 엄마, 아빠! 우린 이제 천사가 되어 하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천사들은 이렇게 슬픈 세상에는 다시 내려 올 수가 없어 언젠가 우린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

엄마,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장 예쁜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제, 안녕... 안녕...

(정태춘 만들고 부른 우리들의 죽음)